

# 해남미소쇼핑몰, 추석 특판 24억...지역 경기 '보탬'

꾸러미 세트 2023년 대비 20%↑  
고물가 시대 가성비 상품 '강세'  
농가 기획전 5억6000만원 기록  
실속 소비 명절 분위기 반영

해남군 직영 온라인쇼핑몰 '해남미소'가 지난달 14일부터 지난 13일까지 진행한 추석명절 행사 기간 동안 24억여원의 매출을 올리며 인기몰이를 이어갔다. 명품꾸러미 세트와 할인기획전 상품 판매가 114% 증가하면서 지역 농특산물 판로

에 보탬이 됐다는 평이다. 23일 해남군에 따르면 지역 농가와 함께 한 할인 기획전은 5억6000여만원의 매출을 올리며 지난해 추석 대비 매출이 2배 이상 늘었다. 올해 전반적인 고물가로 인해 '가성비' 상품이 강세를 보인 까닭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가장 많이 팔린 품목은 해남미소 명품꾸러미 세트로 3억9000만원을 기록해 작년 추석 대비 매출이 약 20% 늘어났다. 해남미소 꾸러미 세트는 명절 시즌에

만 선보이는 선물세트로 해남의 인기 특산물로 다양하게 구성해 매년 조기 매진되는 인기상품이다. 수산물 2억3000만원, 가공식품 1억2000만원, 쌀·잡곡 1억원, 반건조생선 3400만원, 김 2800만원, 한우선물세트 1100만원, 해남고구마 1100만원 등이 판매됐다. 해남군 관계자는 "고물가 속에 실속 소비의 명절 분위기를 반영해 해남미소만의 차별화된 선물세트 상품을 합리적 가격으로 선보인 것이 주효해 좋은 실적을 거둘 수 있었다"며 "해남미소 회원의

93.7%가 관외 회원인 만큼 전 국민을 타겟으로 하는 온라인 쇼핑몰로 더욱 확고히 자리매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남군에서 직영하는 온라인 쇼핑몰 '해남미소'는 고객들이 더욱 편리한 환경에서 쇼핑을 즐길 수 있도록 올해 초 다양한 기능과 최신 트렌드를 반영해 쇼핑몰을 리뉴얼하고 매월 1~3일 쌀 사는 날 행사, 구매 후기 작성 이벤트, 각종 쿠폰 증정 이벤트, 축제 기념 이벤트 등 다양한 콘텐츠를 운영하고 있다.

해남=전연수 기자



해양사고 대응 역량 강화 훈련  
목포해경, 전기차 화재 진압 등

목포해양경찰은 23일 목포 삼학도 임시여객선터미널에서 해양사고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3분기 수난 대비 기본 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에는 목포해경(서해지방해양특수구조대, 목포광역해상교통관제센터 포함), 목포지방해양수산청, 목포소방서, 해양환경공단,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한국선급, 해군 3함대, 씨월드 고속훼리, 한진GTC 등 9개 기관 및 민간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경비함정 5척이 동원됐다.

훈련 내용은 카페리 여객선 내 전기차 화재 상황을 가정한 △회항 조치 등 초기 대응 △해상 익수자 구출 △전기차 화재 진압에 중점을 두었으며 전기차 화재 대응 시 유의사항 등에 관한 전문가의 교육 또한 병행·실시했다.

서월석 경비구조과장은 "선박 내 전기차량 화재는 공간적인 특성상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에 초기 대응이 더욱 중요하다"며 "이번 훈련을 통해 더욱 견고한 대비 태세를 갖추며 선내 전기차 화재사고 대응역량 향상에 더욱 정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양경찰은 매년 수상에서 발생하는 조난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수난구조협력기관 및 수난구조 민간단체 등과 공동으로 '수난대비기본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목포=정기찬 기자

## 내일 군민행복 아카데미 강연 진도군청 대회의실



진도군은 2024년 다섯 번째 '진도군민행복 아카데미' 강연을 25일 오후 2시 진도군청 대회의실에서 전군민을 대상으로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진도군민행복 아카데미는 사전 신청 없이 누구나 입장 가능하며 이번 아카데미는 '웃음박사'로 잘 알려진 국제웃음요가문화연구소 김영식 소장을 초청해 '웃음으로 소통하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한다.

김영식 소장은 이번 강연에서 스트레스 속에 살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웃음을 통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스트레스 관리법 등을 제시할 예정이다.

진도군 관계자는 "풍요로움이 가득 담긴 9월, 아카데미 강연과 함께 웃음 넘치는 가을의 시작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진도=백재현 기자

## 해남군, 무릎인공관절 수술 지원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

해남군은 만성 퇴행성 관절염으로 고통받는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돕기 위해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를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주민등록상 1년 이상 해남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 주민으로 국민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이다.

가구원 수 2인기준 직장가입자 10만 4866원, 지역가입자 3만 8455원 이하가 해당된다.

무릎 인공관절 치환술 의료비 중 본인 부담금을 지원하며 한쪽 관절 수술 시 100만원, 양쪽 관절 수술 시 2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대상자 선정 이전에 시행한 수술에 대해서는 지원받을 수 없으므로 반드시 수술 전 보건소 담당자와 상담이 필요하다.

해남군은 지금까지 무릎인공관절 수술비로 22명에게 25건, 2400만원을 지원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에 따라 하반기 예산을 추가 편성할 계획으로, 수술비 지원을 원하는 대상자는 보건소 건강증진과 방문보건팀(061-531-3773)으로 문의하면 된다.

해남군 관계자는 "무릎관절 질환은 통증으로 일상생활에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게 된다"며 "비용 때문에 고통을 참아 오신 어르신들이 적기에 치료받고 건강한 생활을 찾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해남=전연수 기자



지난 20일 영암군이 영암초 일원에서 모범운전자회 등과 함께 '일단 멈춰, 아이 먼저 보내주세요' 어린이 교통안전 캠페인을 펼쳤다.

영암군 제공

## 영암군,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캠페인 진행

영암군이 지난 20일 영암초등학교 앞에서 영암교육지원청, 모범운전자회, 안전이어즈 등과 '일단 멈춰, 아이 먼저 보내주세요'를 구호로 어린이 교통안전 캠페인을 진행했다.

23일 영암군에 따르면 이날 캠페인은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에서 차량이 일

단 멈춤하고, 아이들이 안전하게 건너도록 배려하는 방식으로 진행됐고 2학기 초등학교 주변 유해환경과 시설물 점검도 함께 이뤄졌다.

나아가 아이들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안전 수칙 안내 '퀴즈 이벤트', 즉석 사진 촬영 '안전 인생네컷' 등이 병행됐

다. 임성수 영암군 군민안전과장은 "이번 캠페인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의식이 강화되길 바란다. 앞으로도 다양한 캠페인으로 아이들의 교통안전을 지켜가겠다"고 말했다.

영암=한교진 기자

## 해남 오시아노서 전국 최대 규모 캠핑관광박람회 열린다

내달 3-6일 오시아노관광단지서

해남에서 국내 최대 규모 캠핑관광박람회가 열린다.

해남군은 다음달 3-6일 나흘간 오시아노관광단지에서 2024 해남캠핑관광박람회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올해로 3번째 맞는 캠핑관광박람회에는 120여개 캠핑레저업체가 참여해 각종 캠핑용품과 캠핑카, 카라반 등을 전시하고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기업별 부스를 운영한다.

기존 오시아노 캠핑장 외에도 임시 캠핑장을 추가로 조성해 캠핑동호회와 기업, 개인 등 800여팀, 4000여명의 캠핑객들이 참여하는 대규모 캠핑 운영으로 오시아노 관광단지의 초기 인기를 캠핑의 낭만으로 물들일 예정이다.

오시아노 관광단지 잔디광장에서 열린

는 박람회는 '지속가능한 모두의 캠핑, 해남에 다 있다'를 주제로 지프, 자갈, 코베아, 캠프벨리 쉼보레, 벤츠 등 기업들의 전시회가 열린다.

환경을 생각하는 캠핑을 테마로 태양열 부시크래프트, 폐현수막 캠핑의자 만들기, 업사이클링 문패·바다유리 악세서리 만들기, 제로 웨이스트존, 탄소중립라운지 등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개막식은 5일 오후 6시 주무대에서 열리며 곧바로 오시아노 뮤직페스타 공연이 이어진다. 비오, 조광일, 나윤권, 송하예 등이 출연하는 음악공연을 함께 볼 수 있는 공연이 펼쳐질 예정이다.

이번 캠핑박람회는 '지속가능한 캠핑'을 주제로 열린다.

모든 먹거리를 지역에서 해결하는 빈손 캠핑 캠페인을 통해 캠핑객이 신선한 해남 농수산물을 바로 구매할 수 있도록

다.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과 캠핑꾸러미 사전예약 판매로 지역사회 소비율을 높였다. 5일 오후 1시부터는 오시아노 관광단지 들어선 해남126호텔 연회장서 캠핑기업과 학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캠핑산업 포럼이 개최된다.

해남군은 성공적이고 안전한 박람회 운영을 위해 세부적인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하고 야외 행사에 대비해 진드기 해충 방제와 풀베기, 가로수 정비로 청결하고 쾌적한 환경조성에 힘쓰고 있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3년차 맞는 캠핑박람회를 올해 더욱 알차게 준비하여 국제적인 행사로까지 발돋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 지속가능한 캠핑의 미래를 볼 수 있는 해남 오시아노에서 올 가을 캠핑의 즐거움을 만끽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해남=전연수 기자

## 결혼이민자 통·번역사 양성 선발 신안군, 지역 인재 발굴 나서

신안군은 다문화가정과 지역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언어소통을 더욱 원활하게 나눌 수 있도록 관내 한국어 능력이 출중한 결혼이민자 중 통·번역사 양성 선발 교육을 진행해 지역 인재를 발굴하고 육성해 다채로운 분야에서 통·번역사로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결혼이민자 통·번역사 양성 선발 교육은 지난 21일 시작해 12월 초에 종료되는 프로그램으로 16명의 수강생이 12회기에 걸쳐 주 1회(4시간), 총 48시간 동안 교육에 참여하게 된다.

신안군 다문화가정 333세대 가운데 베트남, 중국, 캄보디아, 필리핀, 태국 출신이 97%에 해당되며 뒤를 이어 일본, 미얀마, 우즈베키스탄 등의 여러 국가로 이루어져 있어 다양한 통·번역사를 배출해 산업현장의 안전 예방이나 초기 입국자들의 조기 정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전남에서 유일하게 인구가 증가한 신안군은 햇빛연금정책, 청년 어선 구입 임대사업 등 여러 전입 장려 정책을 꾸준히 추진했으며 그 중 다문화가정의 역할이 컸음을 보여줬다"며 "앞으로 신안군은 모든 군민을 위해 남다른 정책을 개발해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며 행복한 신안으로 가꾸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안=홍일갑 기자